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과 관련 요인

문영훈* · 이수희** · 손상희***¹⁾

서울대학교 대학원(가정교육)*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Consumer Education Paradigm Perceived by Home Economics Teachers and Its Related Factors

Moon, Young-Hoon* · Lee, Soo-Hee** · Sohn, Sang-Hee***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onsum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 education paradigm perceived by home economics teachers and its related factors, and to find out relationships among them. 20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ived that the critical consumer education perspective is more important, but in practice, they mostly used the traditional consumer education perspective. Second,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n the consumer education teaching method, the critical perspective was considered more significant and was more frequently used tha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However, the home economics teachers held an ambivalent perspective on the areas of purpose of consumer education, consumer education knowledge, consumer, and consumer society. Accordingly, they used both perspectives in practice for those areas. Finally, the teachers' degree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the perspective on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were found to be the two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teachers' consumer education paradigm.

Key words: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traditional perspective of the consumer education paradigm),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critical perspective of the consumer education paradigm),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Home Economics curriculum perspective)

1) 교신저자: Sohn, Sang-Hee, Seoul National Univ., Daehak-dong, Gwanak-gu, Seoul, Korea
Tel: 02-880-6822, Fax: 02-871-2506, E-mail: ssanghee@snu.ac.kr

2) 본 논문은 2012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바퀴 중 하나는 소비이다.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필요와 욕구의 해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계와 지역 경제, 국가 및 전 지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가 개인과 더불어 인류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바람직한 소비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연구의 결과들이 학문적인 성과와 더불어 미래와 현재의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는 소비자교육으로 구현되고 있다.

소비자교육은 “개인의 자원을 관리하고, 개인의 복지(well-being)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Bannister, 1996, p.1; Sandlin, 2004a 재인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비자교육이 이렇게 정의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교육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본 Sikes(2007)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초의 소비자교육은 소비자들의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여 시장에서 좀 더 나은 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소비자교육에 대해 McGregor(2008)는 그 안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이에 따른 패러다임을 전통·지배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하였다. 패러다임은 연구자들에게 해당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탐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소비자정보와 구매기술이 강조되는 기술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소비자교육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가진 소비자를 길러내고자 했다. 이 진영의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자로부터 침해받기 쉬운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복잡하고 난해한 소비자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구매의사결정과정에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구매결정을 하며, 소비자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았을 경우 합당한 절차를 걸쳐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소비자

교육내용의 중심이 되어왔다. 이와 같이 약자인 소비자의 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비자교육은 친기업적 시장 환경을 친소비자적 시장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McGregor(2005)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힘에 균형을 잡고자 하는 것으로 힘이 왜 존재하고,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Sandlin(2004a)은 소비가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문화적·정치적 속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소비자교육은 학습자가 소비문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특정한 방식을 배우는 정치적 장(場)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와 소비주의에 대한 특정한 대응방식을 체득하기 때문에 소비자교육에는 내재된 힘의 역학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소비와 소비자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정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겼다. 즉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이면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McGregor(2008)는 과거의 전통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전통·지배적 진영으로, 그와 대배되는 새로운 시각이 반영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신생·도전적 진영으로 명명하였다. Sandlin(2004b)은 성인대상 소비자교육에 나타난 소비문화 반응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수용적(Embracing Consumption) 소비자교육, 개인적으로 소비에 의문을 제기하는(Individually Questioning Consumption) 소비자교육, 집단적으로 정치 논쟁화하고 소비에 대항하는(Collectively Politicizing and Fighting Consumption) 소비자교육으로 나누었다. 이 세 수준 중 첫 번째 수준은 McGregor(2008)의 전통·지배적 진영과 맥을 같이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준은 신생·도전적 진영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완전히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양 끝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교육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McGregor(2008)는 앞선 전통·지배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과 신생·도전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소비자교육 실천 현장에서는 공존하며 때론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혼재는 과거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

상 당면하는 소비자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두 관점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실제로 구현되는 중요한 매개는 학자들의 연구와 저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교육과정, 그리고 소비자교육 실천 현장의 교사들이다. 이중 실생활에서 소비자교육을 실행하는 전문적인 실천가 중 학교교육을 통한 소비자교육의 전달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교사들이 가진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에 따라 소비자교육의 방향 설정, 내용 선정, 전달 방법 등 소비자교육 실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교육은 다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단일교과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학교교육에서 소비자교육은 실과(기술·가정), 사회, 도덕 교과에 교과내용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교과 중 소비자교육을 교육내용 중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교과는 실과(기술·가정)교과이다. 특히 초등교과인 실과는 모든 초등교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앞선 연구들은 주로 초등교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등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앞선 소비자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교사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선호와 필요성(장안나, 이연숙, 2000; 표준영, 이성숙, 2006), 세부 소비자교육내용에 대한 인식과 실행(김금숙, 이기춘, 2007; 유현정, 2004; 허경옥, 류수걸, 한수진, 2007)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초등교사로 한정되었다(김금숙 외, 2007; 박승련, 박명희, 2001; 유현정, 2004; 장안나 외, 2000; 표준영 외, 2006). 앞선 연구들에서 사용된 교사의 소비자교육 관련 변수들도 성별, 연령, 교직경력 등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었다. 그러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특정한 인식 틀과 사고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만으로는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 틀과 사고과정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과 교육과정관점을 관련변수로 주목하게 되었다.

가정학은 학생들에게 가족 내에서 그들의 미래 역할을 준비

시키는 역할을 오랜 시간동안 해왔다. Montgomery(2003)는 가정학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접근에 따라 가정학 내 한 요소인 소비자교육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연구 중 소비자교육 분야는 아니지만 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 통계학적 요인 외 가정과교육과정 관점을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권기영, 이기영, 이수희, 2011; 이연정, 조재순, 채정현, 2007; 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 특히, 최유정 외(2009)은 교사효능감의 연구를 통해, 권기영 외(2011)는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연구를 통해, 가정과교육과정 관점이 교사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등교육에서 소비자교육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등 가정과 교사들이 어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가지는지를 조사하고, 교사들이 가지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과 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혼재를 파악하고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어떠한가?
- 2)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어떤 사실들, 구조들, 과정들 등이 ‘학문적’으로 숙고되는 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발생하는 지는 패러다임에 달려 있다. 만일 역사적 전개에서 한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관철되었다면, 시야가 매우 한정되며 현실은 “미리 형성된, 상대적으로 경직된, 패러다임이 제시한 서랍 속으로” 짜 맞추어 넣어진다(윤웅진, 1997, p37). 미국 남부지방의 노예제도 경우 지금은 비인간적인 제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남부인들에게는 노예와 물건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다. 아동의 노동착취문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의 저평가 문제, 빈국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들 모두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연시 되던 때도 있었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cGregor(2008)는 소비자의 사고와 판단, 의사결정 및 행동에 암묵적이고 인식되지 않는 영향력을 주는 것은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에 동반되는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McGregor는 소비자교육자들의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이 시장, 정부, 시민사회, 인종, 지구환경과 같은 소비자 관심사와 소비자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자유경제학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교육자는 소비자교육내용으로 효율적 구매능력을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능력보다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반대로 환경친화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교육자라면 중요시하는 요소가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의 전통적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소비자능력 즉, 소비자지식, 소비자기능과 소비자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Sandlin(2004b)은 전통적인 소비자교육이 기술적 지식과 도구사용기술과 이를 전달하는 학습에 집중

되어 있어,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요소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요소를 소비자교육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통적 관점을 넘어선 대안적 관점의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교육자들이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ikes(2007)는 현 시대의 세계경제환경은 급격한 변화하고 있고 여전히 기업은 막대한 마케팅 물량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소비자교육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배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비자교육에 비판적 관점이 적용되면 학습자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자로서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소비자교육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에 주목한 McGregor(2008)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과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대안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들을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들은 전통·지배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대안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들은 신생·도전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으로 명명되었다. 서로 대비되는 두 진영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이데올로기 맵(Ideological Maps)은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사실상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과 완전히 대비되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McGregor 이 원론적 분류방법을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특징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두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전통·지배적 진영과 신생·도전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서로 대비되는 용어나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소비자교육내용, 소비자역량, 소비자운동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 전통·지배적 진영의 가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특히 재무적 안전을 지켜내고 개선시키는데 관심이 많다. 소비자교육 내용은 소비자 권리, 효율적인 금전과 자원관리,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 소비자문제발생 시 불만 제기방법 등을 중점으로 한다. 소비자 역량은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선택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운동은 기업에 비해 상대

〈표 1〉 소비자교육에 관한 이데올로기 맵(Ideological Maps of Consumer Education)

| 전통·지배적 진영 | 신생·도전적 진영 |
|--|--|
| 소비자권리(개인적 권리) | 소비자 사회적 책임 |
| 소비자 개인-이익 | 상호적, 시민 이익 |
| 소비자교육 | 글로벌 교육과 소비자시민성 교육 |
| 소비자 보호(자신과 기업으로부터) | 부국 소비자로부터 민국 소비자 보호 |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지속가능한 인간과 사회발전 |
| 전통적 경제이론 | 여성주의, 환경주의, 행동주의적이고 발전적 경제이론 |
| 거대기업(다국적 기업) | 다국적 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업 |
| 소비자의사결정 | 윤리적이고 도덕적 소비자의사결정 |
| 공식 경제 | 비공식 경제 |
| 생산 | 재생산과 돌봄 |
| 재무적 안전 | 개인과 타인의 인간으로서의 안전 |
| 서구적 관점 자본주의 | 비-서구적 관점 자본주의 |
| 소비자주의 | 윤리적, 참여적, 지속가능한 소비자주의 |
| 소비자이슈 | 사회적 정의와 과도한 소비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 |
| 소비자 사회화 |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사회화 |
| 자유 시장 경제 | 책임감 있는 시장, 삶의 경제와 보호규약 |
| 기업주도 세계화 | 아래서부터 위로의 세계화 |
| 소비자 정책 | 무역, 외교, 국방, 국가재정과 같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의 정책 |
| 소비자 운동 | 정의와 연대를 위해 시민사회운동과 소비자운동의 동조 |
|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상품에 포함된 폭력 | 구조적 폭력 형태로서의 소비주의(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며, 착취하며, 불이익을 주도록 조직화된 구조) |
| 소비자역량(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가짐, 권리를 알, 많은 시장 경쟁) | 인간 스스로의 내적 힘과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가능성을 찾도록 도움 |
| 소비사회와 문화 | 소비사회의 평화문화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소비자의 책임 |
| 성장, 이윤과 제어 | 지속가능성, 관리와 평화 |
| 경제적 발전(성장) | 인간과 사회 발전 |
| GDP | GPI, HDI |
| 가부장주의 | 가부장주의를 넘어선 휴머니즘, 여성주의와 박애주의(평등사회) |
| 가치중립적 | 가치다양성과 가치에 기반을 둔 |
| 결핍의식(십리) | 풍요의식(시너지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창의적으로 사용해야 함) |
| 고정적 체계 사고(기계론적) | 살아있는 체계 사고(전체적, 통합적) |
| 과학적 패러다임과 연구와 실증적 방법에 따른 연구, 정책 | 연구나 정책 마련에 있어 과학적 방법 이외의 방법 도입 |

자료: McGregor(2008)

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가 기업 활동으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는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신생·도전적 진영의 가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

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적 이익을 추구한다. 안전의 개념은 재정적 풍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과 인간의 정의, 평화, 문화, 정치적 평등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자교육내용은 인권, 사회적 정의, 책임 있는

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한다. 소비자 역량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을 의미한다. 소비자운동은 정의, 권리, 자유, 안전, 평화, 회복, 비폭력,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McGregor(2008)는 두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보다는 이전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과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공존은 소비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종종 딜레마를 안겨준다. 소비자 권리와 경제적 이익 보호라는 기준과 소비자책임과 인권, 공공의 선이라는 시민성 기준은 때론 같은 방향을 향하기도 하지만 때론 다른 방향을 향하기도 한다.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손실이 연결되는 경우 소비자는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나름의 판단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소비생활과 관련된 일상의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일련의 가치기준과 연관되어 있다. 소비자교육에 내재된 패러다임은 교육을 통한 소비자사회화과정에서 소비자의 가치기준의 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소비자교육은 전통적인 현명한 구매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McGregor(2005)는 전통적인 소비자역량에 소비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찾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포함시켜 소비자역량의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McGregor(2002)는 소비자교육에 평화 관점을 접목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모든 구성원에 대한 책임, 세계 공동체와 공유를 소비자교육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 취약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 환경은 소비자에게 그 이상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요구가 반영되어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도 관점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2.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관련 변수

1)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은 교육과정의 내용, 목적, 교육의 역할 등에 대한 교사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교육과정 시행, 특히 교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교육에 관한 철학적 믿음을 의미한다(이연정 외, 2007). 즉,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Brown(1978)은 교육과정 모형으로 기술적 교육과정, 자아실현 교육과정, 실천적 추론 교육과정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각 모형을 학습자, 사회, 지식, 그리고 교육목적에 대한 가정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술적 교육과정은 교과목 내에 포함된 구체적 기술과 내용을 숙달하는 교육과정이며, 자아실현 교육과정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성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이고, 실천적 추론 교육과정은 자주적으로 비판하는 사고력을 기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이다(채정현, 1996).

이수희(1999)는 기술적 교육과정, 자아실현 교육과정, 실천적 추론 교육과정을 각각 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 해석학적 관점의 교육과정, 비판적 관점의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각 관점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기술적 관점의 교육과정 원리의 특징은 수동적·기계적 학습관을 취하며, 경제·산업 우선형 사회를 지향하고, 사회체제, 규범, 관습에 대해 보수적이다. 지식은 생활경험과 분리되어 있고, 이해는 감정이나 가치와는 무관하다. 즉, 내용과 지식의 개념은 독립되어 있다. 해석학적 관점의 교육과정 원리의 특징은 능동적·자율적 학습자관을 취하며, 민주사회를 지지하는 진보적 교육관을 취하고 있다. 지식은 실천적인 생활이나 경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내용과 인지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정의적 사고과정 및 행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 학습은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고, 확립된 지식도 끊임없이 재구축되는 동적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통의 본질적인 성질과 개인적·독자적인 특질이 있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장한다. 비판적 관점의 교육과정 원리의 특징은 자주적 학습관을 취하며, 개성

화를 방해하는 사회화나 문화에 대한 적응을 거부한다. 지식은 과학이나 합리주의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것이며, 개인은 자신에게 중요한 지식을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한다. 개인의 다양성과 독자성이 존중되며, 지식은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습은 자기존재를 알고, 기능성의 발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이수희, 1999). Brown의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은 교육과정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와 교육과정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어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권기영, 이기영, 이수희, 2011; 이연정, 조재순, 채정현, 2007; 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

박명주와 유태명(2001)은 Brown(1978)의 교육과정 모형을 Baldwin(1984), Knight(1989), Schubert(1986)의 연구를 기초로 가정과 교육과정의 관점을 <표 2>와 같이 기술적 관점, 해석적 관점, 해방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Montgomery(2003)는 소비자교육이 가정과 교육의 특정 주

제로 다루어져 온 만큼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소비자교육에 내재된 접근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은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사의 패러다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ntgomery(2003)는 전통적으로 경험-합리적 과학 접근을 따르던 가정과 교육에 대한 비판과학 접근이 등장한 점을 주목하였다. 이를 소비자교육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표 3>과 같이 경험-합리적 과학 소비자교육 접근과 대안적인 비판과학 소비자교육 접근으로 대비시킬 수 있으며, 각 접근을 학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문제소재, 문제해결의 특성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경험-합리적 과학 소비자교육 접근에 따르면, 학생들은 예를 들어 가족과 같은 단일한 맥락 내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한다. 문제소재는 사실 정보와 기술에 중점을 둔 주제(topic)로 구성된다. 문제해결은 목적달성을 강조하는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비판과학 소비자교육 접근에 따르면 학생들은 가족, 직장, 공동체 등 다양한 맥락 내 현재와 미래

<표 2> 교육과정 구성 요소에 관한 세 가지 관점

| 구분 | 기술적 관점 | 해석적 관점 | 해방적 관점 |
|-------|---|--|--|
| 교육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행동 변화 • 경험적-분석적 탐구방법에 의해 얻어진 지식을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행동적인 관점에서 서술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것 • 학습자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서로 함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곡된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함 •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함 |
| 지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중립적 • 이전의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정보에 따라 전개됨 • 보편적이고 쉽게 변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은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임 • 모든 지식은 가설적이며, 새로운 정보에 따라 지식은 바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은 신념의 근원을 깨닫고, 그에 준해 행동했을 때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 •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는 왜곡되어질 수 있음 |
| 교수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내용에 중점을 둠 • 학습자 활동은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자료는 교사와 학습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대화에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교수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신념과 행동의 근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자율을 향해 성장하게 함 |
| 학습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립적인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학습자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므로 자신들의 편견을 깨닫게 됨 • 학습자들은 대화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세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은 비판적인 수용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 • 학습자들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상황이 어떻게 그들 자신의 관심을 억누르는지를 이해함 |
|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미래는 통제와 예측이 가능 • 사회와 문화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보호되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이해에 이르는 것은 사회적 삶의 기본임 • 사회적 긴장 상태는 의사소통의 좌절로 인해 발생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문화는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발달됨 • 사회의 방향은 이성적인 대중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음 |

자료: 박명주 외(2001), p6로부터 수정

〈표 3〉 대안적 교육과정 접근

| 경험-합리적 과학 | 비판과학 |
|--|--|
| 학생들은 하나의 맥락(예를 들어 가족)내 그들의 미래 역할을 위해 준비된다. |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예를 들어, 가족, 직장, 공동체)내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탐색한다. |
| 문제소재는 사실 정보와 기술에 중점을 둔 주제(topic)로 구성된다. | 문제소재는 되풀이되는 관심사와 질문들로 구성된다.;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 강조 |
|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해결; 목적달성을 강조함 | 실천적 추론과정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해결; 성찰적 결과와 행동 강조 |

자료: Montgomery(2003) p.2

의 역할을 탐색한다. 문제소재는 되풀이되는 관심사와 질문들로 구성되며,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이 강조된다. 문제해결은 실천적 추론과정을 기본으로 하며 성찰적 결과와 실행을 강조한다.

Montgomery(2003)의 비판과학 접근은 Brown(1978), Brown과 Paolucci(1979) 등의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표 1>에서 <표 3>의 내용은 전통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표 2>의 기술적 관점은 <표 1>의 전통·지배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표 3>의 경험-합리적 과학 접근과 맥을 같이하며, <표 2>의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은 <표 1>의 신생·도전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표 3>의 비판과학 접근과 맥을 같이한다. 즉, 학교 교육 중 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교과가 가정교과인 만큼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은 학교교육에 내재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연결점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과 학교교육간의 연관성을 본 연구인 최유정 외(2009), 이연 외 2007), 권기영 외(2011)의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유정 외(2009)는 기술·가정(실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교사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관점에 비해 해석적 관점을 취한 교사가 교사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이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연정 외(2007)는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따라 주거교육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 관점을

전통적 관점, 실존적 관점, 구조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교사들의 주거교육가치관을 비교한 결과, 구조적 관점을 가진 교사일수록 다양한 주생활 내용에 민감하였다. 즉,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은 주거교육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구조적 교육과정 관점을 가진 교사일수록 새롭고 다양한 주거교육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기영 외(2011)는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과 수업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기술적 관점보다는 해석적 관점이 수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방적 관점의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상의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이 교사의 특정 교과내용에 대한 교육가치관, 교사효능감, 수업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통적 관점을 가진 교사보다 해석적 관점, 해방적 관점(구조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에게서 높은 교사효능감, 열린 주거교육 자세, 긍정적인 수업문화와 같은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은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구 통계학적 변수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직접 다루는 연구물은 없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교육과정관점 연구(권기영 외, 2011; 이연정 외 2007; 최유정 외, 2009)와 더불어 교사들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교사들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은 표준영 외(2006)의 연구처럼 소비자교육내용을

3) 허숙(1995)은 구조적 관점이 미국 가정교육자 Brown(1980)의 비판적 관점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중심으로 한 연구와 장안나 외(2000), 유현정(2004)과 같이 인구 통계학적 변수, 교사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 경우로 나뉘어졌다.

우선 소비자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표준영 외(2006)는 소비자교육 내용부분을 크게 소비경제환경의 이해, 소비에 관한 가치관, 금전관리 교육, 합리적 구매 교육, 소비자시민성 교육, 환경보호 요소로 나누어 초등교사의 소비자교육 내용 요소별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비에 관한 가치관’, ‘환경보호’, ‘합리적 구매교육’, ‘소비경제환경의 이해’, ‘금전관리교육’, ‘소비자시민성교육’ 요소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인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경우, 장안나 외(2000)는 성별, 연령, 교직경력, 담당학년, 소비자교육 연수경험유무, 대학시절 소비자교육 수강유무, 소비자교육 연수참가 의향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내용요소별 초등학교교사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필요도,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관한 요소는 필요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정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시민성 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에서 적게 다루어져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소비자시민성 교육은 여교사, 젊은 연령층, 소비자교육연수희망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젊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연수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현정(2004)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소비자교육의 경우 소비자교육내용의 절대적 부족과 소비자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소비자교육 비전공자인 담임교사가 교육을 맡기 때문에 담당 교사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식에 따라 소비자교육의 실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간접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변수로는 연령, 소비자교육 및 관련 연수기회와 소비자교육담당자의 인식이었다. 소비자교육내용면에서는 각 연구자들이 사용한 소비자교육내용체계가 달라 연구에 따라 공통적인 면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 그 연구대상이 초등교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비자교육에 대한 선호 및 필요성, 소비자교육내용별 중요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비자교육 내용이 초등과 중등의 전 학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으로는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안나 외(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 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교직경력, 소비자교육연수경험 유무와 더불어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여부, 학력, 가정교육전공여부, 근무학교 소재지, 근무학교의 설립유형을 포함하였다. 또한 소비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중등교사로 확장하고 그 대상을 소비자교육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정과 교사로 선정하여 교사들이 어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가지는지를 조사하고, 교사들이 가지는 소비자교육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는 2011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실시된 1급 정교사 연수에 참여한 가정과 교사를 편의 표집하여 연수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210부의 설문지 중 응

〈표 4〉 조사대상자의 배경

| 구분 | | 배부수(회수) |
|--------|---------------|---------|
| 정교사 연수 | 서울, 경기지역 일정연수 | 104 |
| | 전라지역 일정연수 | 36 |
| | 충청지역 일정연수 | 40 |
| 일반연수 | 전국가정과 교사모임 | 30 |
| 계 | | 210 |

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205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표 4> 참조). 예비조사는 2011년 6월에 가정과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 도구와 자료 분석

1)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알아

보기 위한 도구<표 5>는 McGregor(2008)가 분류한 소비자 교육에 관한 이데올로기 맵의 요소 중 가정과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소비자교육요소를 추출하여 <표 2>의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의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대입하였다. 또한 <표 3>의 대안적 교육과정 접근을 활용하여 McGregor(2008)의 전통·지배적 진영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을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으로, 신생·도전적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으로 명명하였다.

<표 5>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기초한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교육과정 구성요소 | 소비자교육 구성요소 |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
| 교육목적 | 소비자교육목적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권리추구에 대한 것이다.(소비자 권리)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
| | | 소비자교육은 개인적 권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인적 소비자) | 소비자교육은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고려하는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범지구적 소비자시민) |
| |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효율적 의사결정능력)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윤리적, 도덕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윤리적·도덕적 의사결정능력) |
| 지식 | 소비자교육지식 | 소비자정보와 안전문제 등 소비자권리가 존중되지 못해서 생기는 시장실패문제가 중요한 소비자쟁점이다.(시장실패문제) | 사회정의의 침해와 과도한 소비 등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중요한 소비자쟁점이다.(사회정의침해·인권문제) |
| | | 소비자역량이란 소비자가 정보를 갖추고 있고, 권리를 보호받으며,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능력을 의미한다.(전통적 소비자역량) | 소비자 역량이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을 의미한다.(대안적 소비자역량) |
| | |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가치중립적이다(가치중립) |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소비자시민성, 평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판단에 의거한 것이다.(다양한 가치기반) |
| | | 소비자주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힘을 강화하려는 주장과 운동이다.(소비자 힘 강화) | 소비자주의는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를 성취하려는 소비자 참여적 주장과 운동이다.(윤리적 소비·지속가능한 소비) |
| 교육방법 | 소비자교육방법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에게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자원 확보)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자원의 창의적 활용) |
| 학습자 | 소비자 | 소비자는 안전 중 재무적 안전(금전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것)과 삶의 경제적 질을 중요시 한다.(재무적 안전) | 소비자는 안전 중 건강, 정의, 평화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안전을 중요시 한다.(인간으로서의 안전) |
| | |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적 권익, 특히 경제적 안전과 물질적 삶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개인적 권익) | 소비자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모두 고려한다.(범지구적 시민) |

<표 계속>

| 교육과정 구성요소 | 소비자교육 구성요소 |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
| 사회 | 소비사회 | 소비사회에서 발전이란 경제적 발전을 의미한다.(경제적 발전) | 소비사회에서 발전이란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의미한다.(인간발전과 사회발전) |
| | | 소비자보호란 기업의 부당한 활동으로부터 소비자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소비자권리침해보호) | 소비자보호란 선진국이나 부국의 소비로 인해 저개발국가나 빈곤 국가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저개발국가·빈국 소비자권리보호) |
| | |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유해한 기업활동 규제 소비자정책) |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정책의 범위를 소비자 및 기업 간의 관계를 넘어서 외국인, 무역, 건강, 운송, 이민, 노동, 국방, 국가재무 정책으로 확장하는 것이다.(국가정책으로 확장) |
| | | 소비자운동은 소비사회의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다.(소비자와 사업자의 불균형해소) | 소비자운동은 정의, 권리, 자유, 평화 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운동이다.(시민사회운동) |

괄호안의 내용은 각 설문을 간략히 요약한 것임

조사도구의 문항은 총 28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과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으로 대비되어 나뉘며, 인식과 실행 부분에 각각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묻는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식을 묻는 문항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에 2점, ‘다소 동의한다.’에 3점, ‘매우 동의한다.’에 4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인식에서 해당 패러다임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평소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권리추구에 대한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실행을 묻는 문항은 각 문항이 실제 소비자교육을 통해 실행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에 1점, ‘별로 실행되지 않는다’에 2점, ‘다소 실행된다.’에 3점, ‘많이 실행된다.’에 4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소비자교육 수업에 해당 패러다임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권리추구에 대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통해 별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별로 실행되지 않는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2) 교육과정 관점 조사도구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 경

향 설문지는 박명주 외(2001), 최유정 외(2009)가 사용한 설문 문항과 Brown(1978)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해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문항은 <표 6>과 같이 총 27개로 학습자에 대한 인식 9개 문항, 사회에 대한 인식 9개 문항, 가정교과 지식에 대한 인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9개의 문항은 기술적·해석적·해방적 관점에 대해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 경향을 묻는 문항은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동의한다’에 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의 생각이 그 관점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3)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설문지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집단(교수 2인, 박사과정 중인 중등 가정과 교사 1인, 석사과정 중인 중등 가정과 교사 3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서울과 경기지역의 가정과 교사 8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versio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과학분야에서 Cronbach's α가 0.6 이상이면 그 요인은 신뢰성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이종성, 남궁지영,

〈표 6〉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

| 관점구분 | | 문항 내용 |
|-----------|-----|--|
| 기술적 관점 | 학습자 | 나는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 갈 때 지식구성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자보다는 지식을 그대로 전수받는 중립적인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학생들이 현존하는 가치, 규범, 역할을 받아들여도록 사회화되어 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사회 | 나는 사회구성원이 현존하는 사회 규범과 문화적 관습을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사회는 고도로 전문화되었고, 이러한 전문화가 지금의 경제적, 산업적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 | | 나는 현 사회의 안정을 위해 사회구성원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통제(제어)하는 것이 사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 | 지식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주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는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 해석적 관점 | 학습자 | 나는 학생들이 능동적이며 자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그들의 생활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학습자는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특성을 개발하는 “피지 않은 꽃”과 같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사회 | 나는 사회적 삶의 기본은 대화를 통해 사회구성원 간에 상호이해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나는 사회적 긴장(혼란, 갈등) 상태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선택을 존중하며 사회구성원이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지식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해당 지식과 관련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고정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어진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
| 해방적 관점 | 학습자 | 나는 학생들이 사회 전반에 내재되어 의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믿음을 비판하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가치와 교육과정관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편견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학생들이 자주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사회 | 나는 이성적인 대중에 의해 자유로운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사회 규범과 문화적 관습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공동 노력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사회구성원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유민주사회의 창조와 보호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 | 지식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가정과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위한 것이기에 가치 지향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실제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통찰력을 창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이라고 생각한다. |
| | | 나는 가정교과와 관련된 지식은 특정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표 7〉 설문지의 요소별 신뢰도

| 요소 | 관점 | 문항내용 | Cronbach's α |
|------------|--------|--------|--------------|
|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 전통적 관점 | 인식 | .765 |
| | | 실행 | .812 |
| | 비판적 관점 | 인식 | .818 |
| | | 실행 | .871 |
| 교육과정 관점 | 기술적 | 기술적 관점 | .729 |
| | 해석적 | 해석적 관점 | .622 |
| | 해방적 | 해방적 관점 | .746 |

2008). 따라서 본 설문지의 예비조사 결과, 모든 변수들의 Cronbach's α 가 0.6 이상이므로 본 설문은 신뢰성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엑셀 파일로 코딩한 뒤 SPSS/win(version 20.0)에서 불러 통계 처리 하였다. 연구 내용에 따라 평균 및 표준편차, t-검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경향

1) 전체적인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경향

가정과 교사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경향은 인식과 실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전체적인 경향은 <표 8>과 같다.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과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모두 실행에 비해 인식 점수가 높았다. 인식측면에서는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3.12)이 전

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3.04)보다 높았지만 실행측면에서는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2.67)이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2.61)보다 높았다.

2)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하위요소별 경향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하위요소별 경향은 소비자교육목적, 소비자교육지식, 소비자교육방법, 소비자, 소비자회의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문항은 전통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는 대응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제 수업 중 반영되는 실행의 두 측면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인식과 실행에 대한 교사의 응답이 일치하기도 하고 불일치하기도 하였다.

McGregor(2008)의 연구와 같이 교사들의 인식과 실행에 나타난 소비자교육패러다임은 그 하위 다섯 가지 요소에서 혼재되어 있었다. 우선 ‘소비자교육목적’은 소비자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지향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교육의 의미, 소비자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소비자상,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길러지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비자교육은 <표 9>의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과

〈표 8〉 전체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경향

| 관점 | 인식전체M(SD) | 실행전체M(SD) |
|-----|------------|------------|
| 전통적 | 3.04(0.36) | 2.67(0.15) |
| 비판적 | 3.12(0.24) | 2.61(0.17) |
| t | - 7.87 *** | -2.35* |

주: *p<.05, **p<.01, ***p<.001

〈표 9〉 교육과정 구성요소에 기초한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교육과정 구성요소 | 소비자 교육구성 요소 |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 인식 M (SD) | 실행 M (SD) |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 인식 M (SD) | 실행 M (SD) | t | |
|-----------|-------------|--|-------------|-------------|--|-------------|-------------|---------|--------|
| | | | | | | | | 인식 | 실행 |
| 교육목적 | 소비자교육 목적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권리추구에 대한 것이다. | 3.09 (0.57) | 2.82 (0.58)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 | 3.39 (0.56) | 2.79 (0.66) | 6.18* | -0.70 |
| | | 소비자교육은 개인적 권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2.67 (0.76) | 2.56 (0.59) | 소비자교육은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고려하는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34 (0.59) | 2.60 (0.68) | -10.06* | -0.83 |
| |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3.43 (0.54) | 2.88 (0.62)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윤리적, 도덕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3.39 (0.58) | 2.80 (0.62) | -1.04 | -1.98* |
| 지식 | 소비자교육 지식 |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가치중립적이다. | 2.13 (0.77) | 2.54 (0.68) |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소비자시민성, 평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 3.10 (0.65) | 2.61 (0.72) | -14.30* | -1.16 |
| | | 소비자주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힘을 강화하려는 주장과 운동이다. | 2.99 (0.59) | 2.53 (0.63) | 소비자주의는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를 성취하려는 소비자 참여적 주장과 운동이다. | 3.35 (0.58) | 2.79 (0.69) | -6.79* | -4.92* |
| | | 소비자역량이란 소비자가 정보를 갖추고 있고, 권리를 보호받으며, 시장에서 선택권을 보장받는 능력을 의미한다. | 3.30 (0.56) | 2.77 (0.55) | 소비자 역량이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을 의미한다. | 3.39 (0.53) | 2.61 (0.61) | -2.24* | 3.96* |
| | | 소비자정보와 안전 문제 등 소비자권리가 존중되지 못해서 생기는 시장실패문제가 중요한 소비자쟁점이다. | 3.13 (0.57) | 2.60 (0.57) | 사회정의의 침해와 과도한 소비 등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중요한 소비자쟁점이다. | 3.02 (0.63) | 2.48 (0.64) | -2.20* | -2.61* |
| 교육방법 | 소비자교육 방법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에게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 2.64 (0.68) | 2.39 (0.63)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 2.93 (0.58) | 2.58 (0.61) | 5.42* | 3.62* |

<표 계속>

| 교육과정 구성요소 | 소비자 교육구성 요소 |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 인식 M (SD) | 실행 M (SD) |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 인식 M (SD) | 실행 M (SD) | t | |
|-----------|-------------|--|-------------|-------------|--|-------------|-------------|---------|---------|
| | | | | | | | | 인식 | 실행 |
| 학습자 | 소비자 | 소비자는 안전 중 재 무적 안전(금전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것)과 삶의 경제적 질을 중요시 한다. | 2.98 (0.69) | 2.64 (0.64) | 소비자는 안전 중 건강, 정의, 평화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안전을 중요시 한다. | 3.29 (0.60) | 2.81 (0.65) | 5.18* | 1.239 |
| | |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적 권익, 특히 경제적 안전과 물질적 삶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 3.30 (0.56) | 2.81 (0.65) | 소비자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모두 고려한다. | 3.18 (0.64) | 2.44 (0.72) | 2.21* | 6.78* |
| 사회 | 소비 사회 | 소비사회에서 발전이란 경제적 발전을 의미한다. | 2.91 (0.71) | 2.79 (0.62) | 소비사회에서 발전이란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의미한다. | 3.38 (0.56) | 2.88 (0.59) | -8.50* | -1.83 |
| | | 소비자보호란 기업의 부당한 활동으로부터 소비자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 3.44 (0.54) | 2.84 (0.66) | 소비자보호란 선진국이나 부국의 소비로 인해 저개발국가나 빈곤 국가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 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 2.53 (0.75) | 2.26 (0.65) | -14.21* | -10.39* |
| | |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 3.38 (0.56) | 2.58 (0.69) |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정책의 범위를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넘어서 외국인, 무역, 건강, 운송, 이민, 노동, 국방, 국가재무 정책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 3.27 (0.59) | 2.46 (0.67) | -2.31* | -2.12* |
| | | 소비자운동은 소비사회의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다. | 3.18 (0.52) | 2.57 (0.64) | 소비자운동은 정의, 권리, 자유, 평화 등을 추구하는 시민 사회운동이다. | 3.21 (0.59) | 2.50 (0.62) | 0.71 | -1.31 |

주: * p < .05*

같이 소비자의 권리추구와 효율적 의사결정능력을 소비자교육 목적의 중점으로 삼아왔다. 반면,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이러한 전통적 소비자교육목적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성과 윤리적·도덕적 의사결정능력까지 소비자교육목적을 확대하고 그 중점을 비판적 관점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교육목적’ 요소는 총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인식측면 두 부분에서 비판적 관점이, 실행측면 한 부분에서 전통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즉 인식측면에서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권리

추구에 대한 것이다”(M=3.09), “소비자교육은 개인적 권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M=2.67)보다는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M=3.39), “소비자교육은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고려하는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3.34)와 같이 비판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반면, 실행 측면에서는 “소비자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M=2.88)와 같이 전통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이는 소비자교육의 목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전통적 관점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하위 요소 중 ‘소비자교육지식’은 소비자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이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진술되고 전달되는 지를 나타낸다. 즉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가치중립적인 소비자행동, 소비자권리 중심의 소비자주의와 소비자역량, 시장실패로 인한 소비자쟁점 등이 다루어진다. 반면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기반이 된 소비자행동, 윤리적 소비 및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조하는 소비자주의,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을 의미하는 소비자역량, 인권문제까지 포괄하는 소비자쟁점으로 전환된다. ‘소비자교육지식’요소는 총 여덟 문항으로 비판적 관점이 우세한 두 부분, 두 관점이 혼재된 한 부분, 전통적 관점이 우세한 한 부분이 뒤섞여 있었다. 교사들은 “소비자의 소비자행동은 소비자시민성, 평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판단에 의거한 것이다.”(M=3.10),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를 성취하려는 소비자 참여적 주장과 운동이다.(M=3.35)’와 같이 비판적 관점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소비자주의는 실행(M=2.79) 측면에서도 비판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반면 교사들은 “소비자 역량이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을 의미한다.”(M=3.39)와 같이 비판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수업 실행은 “소비자역량이란 소비자가 정보를 갖추고 있고, 권리를 보호받으며,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능력을 의미한다.”(M=2.77)와 같이 전통적 관점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소비자정보와 안전문제 등 소비자권리가 존중되지 못해서 생기는 시장실패문제가 중요한 소비자쟁점이다.”(M=3.13)이라고 전통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다(M=2.60). 이는 소비자교육지식에 비판적 관점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 관점도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하위 요소 중 ‘소비자교육방법’은 교사들이 앞선 ‘소비자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은 인식과 실행 모두에 대해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인식 M=2.93)(실행 M=2.58)의 비판적 관점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소비자교육지식’의 소비자주의와 더불어 인식과 실행의 양 측면 모두에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권기영 외(2011)는 교사들의 교육과정관점 중 해석적 관점의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공감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내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즉, ‘소비자교육방법’에서 비판적 관점이 우세한 이유는 교사들의 가정과 교육과정관점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하위 요소 중 ‘소비자’는 교사들이 소비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소비자가 재무적 안전과 이에 대한 보호와 개선에 집중한다고 본 반면,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소비자가 인간으로서의 안전과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모두 고려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요소는 총 네 문항으로 앞선 세 요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두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교사들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해 “소비자는 안전 중 건강, 정의, 평화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안전을 중요시 한다.”(M=3.29)와 같이 비판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소비자가 추구하는 권익의 범위에서는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적 권익, 특히 경제적 안전과 물질적 삶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M=3.30)와 같이 개인적 권익이 더 강조된다고 보았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M=2.81).

마지막으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하위 요소 중 ‘소비사회’는 교사들의 소비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경제적 발전을 중시하며, 소비자권리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바라보고 정부정책과 소비자운동도 같은 방향에서 보고 있다. 반면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서는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중시하며, 소비자보호의 대상을 저개발국가나 빈국의 소비자들까지 고려하며, 소비자정책을 국가정책까지 연장하며, 소비자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소비사회’요소는 총 여덟 문항으로 혼재된 양상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발전에 대해 “소비사회에서 발전이란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의미한다.(M=3.38)”와 같이 비판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소비자보호,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인식과 실행측면 모두 전통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교사들은 “소비자보호란 기업의 부당한 활동으로부터 소비자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M=3.44)로 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M=3.38)라고 보고 있었다. 소비자운동에 대해서는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인식과 실행에 나타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소비자교육구성요소별로 혼재되어 있었다. 혼재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10>과 같이 소비자

교육 패러다임 하위요소를 다시 재분류하여 그 경향을 살펴본다. 분류에 따르면 전통적 관점이 강한 부분, 비판적 관점이 강한 부분, 비판적 관점의 인식만 높은 부분, 두 관점이 혼재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통적 관점이 우세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소비자는 개인적 권익을 중시하며, 시장실패로 인해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며, 소비자보호란 기업의 부당활동으로부터 소비자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소비자정책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소비자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비판적 관점이 우세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윤리적 소비와 자원의 창의적 사용을 중요시하고 이

<표 10>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교사의 경향성

| |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
|--------------------|---|--|
| 인식과 실행 모두 전통적 관점우세 |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적 권익, 특히 경제적 안전과 물질적 삶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 소비자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모두 고려한다. |
| | 소비자정보와 안전문제 등 소비자권리가 존중되지 못해서 생기는 시장실패문제가 중요한 소비자쟁점이다. | 사회정의의 침해와 과도한 소비 등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중요한 소비자쟁점이다. |
| | 소비자보호란 기업의 부당한 활동으로부터 소비자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 소비자보호란 선진국이나 부국의 소비로 인해 저개발국가나 빈곤 국가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
| 인식과 실행 모두 비판적 관점우세 |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정책의 범위를 소비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넘어서 외국인, 무역, 건강, 운송, 이민, 노동, 국방, 국가재무 정책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
| |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힘을 강화하려는 주장과 운동이다. |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를 성취하려는 소비자 참여적 주장과 운동이다. |
| 인식만 비판적 관점우세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에게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
| |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가치중립적이다. |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소비자시민성, 평화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
| | 소비사회에서 발전이란 경제적 발전을 의미한다. | 소비사회에서 발전이란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을 의미한다. |
| | 소비자는 안전 중 재무적 안전(금전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것)과 삶의 경제적 질을 중요시 한다. | 소비자는 안전 중 건강, 정의, 평화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안전을 중요시 한다. |
| 혼재(불명확)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권리추구에 대한 것이다.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 |
| | 소비자교육은 개인적 권익을 추구하는 소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소비자교육은 다른 소비자와 공익을 고려하는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혼재(불명확) | 소비자운동은 소비사회의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다. | 소비자운동은 정의, 권리, 자유, 평화 등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운동이다. |
| | 소비자역량이란 소비자가 정보를 갖추고 있고, 권리를 보호받으며,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보장받는 능력을 의미한다. | 소비자 역량이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을 의미한다. |
|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윤리적, 도덕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표 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임

에 따라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행측면에서 두 소비자 교육 패러다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인식측면에서 비판적 관점이 우세한 부분으로는 소비행동과 가치판단, 인간발전과 사회발전, 인간으로서의 안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이었다. 기타 소비자운동, 소비자역량, 의사결정능력의 부분은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간에 인식과 실행이 엇갈리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은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문항별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인식측면에서는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행측면에서는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아직 실행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교과서와 같은 교육 콘텐츠인 만큼 학교 소비자교육 콘텐츠에 내재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11> 두 패러다임에 대한 문항별 우선순위

| 관점 순위 |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 | |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 | | | |
|----------|-------------------|------|-----------------|------|---------------------------|------|---------------------------|------|
| | 인식 | M | 실행 | M | 인식 | M | 실행 | M |
| 1 | 소비자권리침해 보호 | 3.44 | 효율적 의사결정능력 | 2.88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 3.39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 2.79 |
| 2 | 효율적 의사결정능력 | 3.43 | 소비자권리침해보호 | 2.84 | 윤리적·도덕적 의사결정능력 | 3.39 | 인간발전과 사회발전 | 2.88 |
| 3 | 유해한기업활동규제 소비자정책 | 3.38 | 소비자 권리 | 2.82 | 대안적 소비자역량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 | 3.39 | 인간으로서의 안전 | 2.81 |
| 4 | 전통적 소비자역량 | 3.3 | 개인적 권익추구 | 2.81 | 인간발전과 사회발전 | 3.38 | 윤리적·도덕적 의사결정능력 | 2.8 |
| 5 | 개인적 권익추구 | 3.3 | 경제적 발전 | 2.79 | 윤리적 소비·지속 가능한 소비 | 3.35 | 윤리적 소비·지속 가능한 소비 | 2.79 |
| 6 | 소비자와사업자와의 불균형해소 | 3.18 | 전통적 소비자역량 | 2.77 | 범지구적 소비자시민 | 3.34 | 대안적 소비자역량 (내적 힘과 사회적 잠재력) | 2.61 |
| 7 | 시장실패문제 | 3.13 | 재무적 안전 | 2.64 | 인간으로서의 안전 | 3.29 | 다양한 가치기반 | 2.61 |
| 8 | 소비자 권리 | 3.09 | 시장실패문제 | 2.6 | 국가정책으로 확장 | 3.27 | 범지구적 소비자시민 | 2.6 |
| 9 | 소비자의 힘 강화 | 2.99 | 유해한기업활동규제 소비자정책 | 2.58 | 시민사회운동 | 3.21 | 자원의창의적활용 | 2.58 |
| 10 | 재무적 안전 | 2.98 | 소비자와사업자와의 불균형해소 | 2.57 | 다른 소비자와 공익 | 3.18 | 시민사회운동 | 2.5 |
| 11 | 경제적 발전 | 2.91 | 개인적 소비자 | 2.56 | 다양한 가치기반 | 3.1 | 사회정의의 침해·인권문제 | 2.48 |
| 12 | 개인적 소비자 | 2.67 | 가치중립 | 2.54 | 사회정의의 침해·인권문제 | 3.02 | 국가정책으로 확장 | 2.46 |
| 13 | 자원 확보 | 2.64 | 소비자의 힘 강화 | 2.53 | 자원의창의적활용 | 2.93 | 다른 소비자와 공익 | 2.44 |
| 14 | 가치중립 | 2.13 | 자원 확보 | 2.39 | 저개발국가·빈곤 국가소비자권리보호 | 2.53 | 저개발국가·빈곤 국가소비자권리보호 | 2.26 |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표 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 요소들임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인식과 실행측면에서 혼재되어 있었다. 인식측면에서는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3.12)이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3.04)보다 높았지만 실행측면에서는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2.67)이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M=2.61)보다 높았다. 소비자교육구성요소인 ‘소비자교육 목적’, ‘소비자교육지식’, ‘소비자교육방법’, ‘소비자’, ‘소비사회’에 나타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도 각 요소별로 두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개인적 권익, 시장실패문제, 소비자권리침해 보호, 유해한 기업활동규제 소비자정책은 인식과 실행측면 모두에서 전통적 관점의 패러다임이 우세하였다. 윤리적·지속 가능한 소비와 자원의 창의적 활용은 인식과 실행측면 모두에서 비판적 관점의 패러다임이 우세하였다. 다양한 가치기반, 인간발전과 사회발전, 인간으로서의 안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은 인식측면에서만 비판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기타 소비자운동, 소비자역량, 의사결정능력의 부분은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간에 인식과 실행이 엇갈리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각 문항별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인식은 비판적 관점이 좀 더 많았지만 실행은 전통적 관점이 훨씬 많아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실행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관련요인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관련 요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을 살펴보았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회귀분석을 위해 조정하였으며, 가정교육전공, 교직경력(4년 이상, 성별은 남성, 결혼여부는 미혼, 학력은 대졸이하, 소재지는 서울, 설립유형은 국·공립, 소비자교육연수 경험 있음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교사가 지각한 가정과 교육관점은 기술적 관점,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별로 전체 점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은 해석적 관점이(M=3.25) 가장 높았고, 해방적 관점(M=3.21), 기술적 관점(M=2.53)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최유정 외, 2009; 권기영 외, 201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Montgomery(2003)의 경험-합리적 접근은 기술적 관점과 비판과학 접근은 해석적 관점, 해방적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즉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은 경험-합리적 접근보다는 비판과학 접근의 점수가 더

〈표 12〉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관련변수 | | 전통적 관점 | | | | 비판적 관점 | | | |
|------------------|-------------|---------|--------|--------|-------|---------|--------|-------|-------|
| | | 인식 | | 실행 | | 인식 | | 실행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인구 통계학적 변수 | 가정교육전공(유) | -0.07 | -0.10 | 0.05 | 0.07 | -0.11 | -0.15* | 0.07 | 0.08 |
| | 교직경력(4년 이상) | -0.05 | -0.09 | -0.04 | -0.06 | 0.03 | 0.05 | 0.02 | 0.03 |
| | 성별(남성) | 0.20 | 0.12 | -0.11 | -0.05 | 0.07 | 0.04 | -0.23 | -0.10 |
| | 결혼여부(미혼) | 0.04 | 0.06 | 0.06 | 0.10 | -0.01 | -0.01 | -0.03 | -0.04 |
| | 학력(대졸) | -0.02 | -0.03 | 0.09 | 0.13 | 0.01 | 0.01 | 0.02 | 0.02 |
| | 소재지(서울) | 0.02 | 0.03 | 0.00 | 0.00 | 0.01 | 0.02 | -0.12 | -0.13 |
| | 설립유형(국공립) | -0.09 | -0.13 | -0.03 | -0.03 | -0.00 | -0.00 | -0.02 | -0.03 |
| 소비자교육연수경험(유) | -0.02 | -0.03 | 0.07 | 0.09 | 0.04 | 0.05 | -0.02 | -0.03 | |
| 교육과정 관점 | 기술적 관점 | 0.20 | 0.24** | 0.05 | 0.06 | 0.03 | 0.03 | 0.07 | 0.07 |
| | 해석적 관점 | 0.23 | 0.23* | 0.11 | 0.10 | 0.35 | 0.31** | 0.08 | 0.06 |
| | 해방적 관점 | 0.03 | 0.03 | 0.20 | 0.21 | 0.28 | 0.27** | 0.22 | 0.18 |
| R ² | | 0.18 | | 0.12 | | 0.31 | | 0.09 | |
| F(sig) | | 3.77*** | | 2.26** | | 7.37*** | | 1.76 | |
| Durbin-Watson | | 1.98 | | 1.83 | | 2.23 | | 1.84 | |

주: * p < .05, ** p < .01, *** p < .001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교사의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교육과정 관점의 변수를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따르면,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은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의 인식측면과 실행측면에,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인식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적 관점의 실행측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인식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술적 관점과 해석적 관점이었지만, 실행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인식측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 가정교육전공, 교육과정관점 중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 변인이었다. 이 중 가정교육과정전공은 부적 영향력을, 교육과정 관점은 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장 큰 예측변수는 해석적 관점 다음은 해방적 관점, 가정교육전공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 가정교육전공과 교육과정 관점이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관점의 인식측면에서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기술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일수록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 전통적 관점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일수록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실행측면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이 모두 의미 있는 설명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변수로 해석적 관점이 기술적 관점과 더불어 나타난 것은 비판과학 접근을 따르면 해석적 관점이 현존하는 규범이나 문화적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성화를 방해하는 사회나 문화에 대한 순응에 대한 거부(권기영 외, 2011)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주의나 소비자운동은 기존 기업중심의

시장 환경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점이 소비자교육이 태동되던 시기에 그대로 교육에 내재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는 소비자를 옹호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소비시장에 대해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해석적 관점이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두 관점 모두에 의미 있는 설명변수가 된 것은 전통적으로 소비자교육에 내재된 소비자권의 보호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교육전공여부($\beta=-0.15$, $p<0.01$) 중 가정교육전공인 경우가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범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패러다임이 비판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즉, 사범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이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비판적 관점에 대한 가정교육전공의 부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범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관점 중 해석적 관점의 영향은 최유정 외(2009), 권기영 외(2011)의 연구와 유사하며, 해방적 관점의 영향은 이연정 외(2007)의 연구와 유사했다. 해석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은 Montgomery(2003)의 비판과학 접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 중 비판적 입장에 있는 경우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이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관점은 Montgomery(2003)의 경험-합리적 과학 접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 전통적 입장에 있는 경우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전통적 관점이 나타났다. 즉,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은 교사들이 지각한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과 연관성이 높았다. 이는 소비자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연수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개선이 전반적인 가정과 교육뿐만 아니라 그 하위 영역인 소비자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이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인식전환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실행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교사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경향과 관련변수의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정과 교사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경향과 관련변수의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두 관점에 따라 인식측면에서는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보다 높았지만 실행측면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측면에서는 전통적 관점에서 비판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인식측면의 변화가 소비자교육 실행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구성요소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 결과 두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었다. ‘소비자교육방법’은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이 우세하였으나 ‘소비자교육목적’, ‘소비자교육지식’, ‘소비자’, ‘소비사회’는 두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인식과 실행측면에서 모두 높은 부분으로는 소비자의 개인적 권익, 시장실패로 인해 소비자 문제, 기업의 부당활동으로부터 소비자권리의 보호와 소비자정책이었다. 이에 반해, 비판적 관점이 우세한 부분은 윤리적 소비와 자원의 창의적 사용이었다. 그리고 실행측면에서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인식측면에서 비판적 관점이 우세한 부분으로는 소비행동과 가치판단, 인간발전과 사회발전, 인간으로서의 안전,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범지구적 소비자시민이었다. 기타 소비자운동, 소비자역량, 의사결정능력은 두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간에 인식과 실행이 엇갈리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가정과 교사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관련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인구 통계학적 변수 중 가정교육전공만이 의미 있는 변수였으며,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은 두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모두 의미 있는 변수였으며, 특히 인식측면에서 의미 있는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McGregor(2008)는 두 진영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현실 세계에서는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소비자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두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었다.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은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교사들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인식과 실행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McGregor(2008)의 지적했던 두 패러다임의 혼재 또는 공존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교사들 스스로가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고, 교사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패러다임 혼재와 공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연구가 필요하다. 인식측면에서는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요소가 강한 반면 실행측면에서는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강하게 나타난 원인으로 교사들의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교육 콘텐츠의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즉 가정과 교사들이 소비자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육 콘텐츠에 내재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전통적 관점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경우 수업으로 실현되는 소비자교육이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교육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과 교사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교사가 지각한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이 설명력 있는 변수였으나 인식측면에 한정되고 실행측면에서는 설명력 있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소비자교육에 반영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더 필요하다.

셋째, McGregor(2008)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관점의 전환만이 아니라 소비자교육을 연구하는 방법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다. 즉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내러티브와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할 질적 연구가 소비자교육연구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로 한정된 제한점이 있는 만큼 이후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소비자교육학자, 학습자 등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영, 이기영, 이수희 (2011).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과 가정과 교사들의 수업문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3(4), 125-141.

김금숙, 이기춘 (2007). 초등학교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교육내용 분석-소비자지식·소비자태도·소비자기능을 중심으로 -. **소비자정책연구**, 3(2), 23-41.

박명주, 유태명 (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과정 관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161-174.

유현정 (2004). 7차 교육과정의 학교소비자교육 실태-청주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8(1), 117-137.

윤운진 (1997). 비판교육학에 관한 연구. **신학지평**, 38, 279-318.

이수희 (1999).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모형-재개념주의 관점에 기초한 통합 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연정, 조재순, 채정현 (2007).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주거교육가치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219-232.

이종성, 남궁지영 (2008). **교육연구방법과 SPSS활용 자료 분석**. 교학연구사, 서울.

장안나, 이연숙 (2000). 초등학교 교사의 소비자교육에 관한 필요도-요구도와 관련 변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2), 15-28.

채정현 (1996).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선호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33-49.

최유정, 박미정, 채정현 (2009). 기술·가정(실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가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1), 89-109.

표준영, 이성숙 (2006). 초등학교 학생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3), 115-174.

허경옥, 류수걸, 한수진 (2007).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소비자교육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연구**, 3(1), 79-97.

허숙 (1995). 교육과정 재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탐색. **교육학연구**, 33(5), 217-242.

Baldwin, E. E. (1984). *The nature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econdary school*. Doctorial Dissertation. The Oregon State University.

Brown, M. M (1978). *A Conceptual scheme and decision-rules for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content*, Madison, Wisconsin: 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_____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Knight, A. P. (1989). *An analys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nutrition programs determining their orientation toward the mission of home economics*. Doctori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McGregor, S.L.T. (2002). Consumerism and peace. *Consumer sciences today*, 3(3), 8-9. Retrieved november 17, 2009 from [http://www.kon.org/publications/cons_peace.htm]

_____ (2005). Sustainable consumer empowerment through critical consumer education: A Typology of consumer education approa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9(5), 437-447.

_____ (2008). Ideological maps of consum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2, 545-552.

Montgomery, B. (2003). The Critical science approach to reasoning for action in consumer education. *The Journal of Consumer Education*, 21, 1-21.

Sandlin, J. A. (2004a). More than technical skills: Consumer education and a critical pedagogy of consumption. *The Journal of Consumer Education*, 22, 19-26.

_____ (2004b). Consumerism, consumption, and a critical consumer education for adult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02.

Sikes, V. M. (2007). Consumer education: Reframing its importance toda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Philosophy and History of Education*, 57,

158-160.

possibility. New York: Macmillan.

Schubert, W. H. (1986). *Curriculum: perspective, paradigm, and*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 가정과 교사들이 어떤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을 가지는지를 조사하고, 교사들이 가지는 소비자교육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 표집한 설문지 20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win(v. 20.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가정과 교사가 지각한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조사한 결과, 인식측면에서는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실행측면에서는 전통적 관점의 소비자교육패러다임이 우세하였다. 또한 소비자교육구성 요소에 대한 경향을 알아본 결과 소비자교육방법은 비판적 관점의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인식과 실행측면 모두에서 우세하였지만, 소비자교육목적, 소비자교육지식, 소비자, 소비사회는 두 관점이 혼재되어 있었다. 둘째,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관련변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육전공과 가정과 교사들이 지각한 교육과정 관점이 의미 있는 변수였다. 이 변수는 소비자교육 패러다임 인식측면에는 의미 있고, 실행측면에는 의미 있지 않았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2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5월 4일